

거룩한 이름 - The Name

그가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너 다윗의 아들 요셉아, 마리아를 네 아내로 삼는 일을 두려워 말라 그녀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니라.’고 하니라. (마태복음 1: 20,21)

위에 성경 말씀에서 그대가 무엇인가 빠뜨렸다는 느낌을 가져 보았는가? 나에게 얼마동안 그러한 느낌이 분명히 있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 **Jesus**” 라는 이름을 설명한 곳이 없고, 오히려 그분의 이름이 왜 그렇게 명칭 되었는가 하는 “이유”가 그분이 죄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사실상, 메시아께서 생애 하실 때, 결코 이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다, 그러나 위에 문단을 읽는 자는 천사가 선포하는 말이 어떤 의미로 정확하게 발음하였는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사실상,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이해하였다면, 아버지와 그분 이름의 ‘성’이 똑같은 것이 중대하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계시된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또 글자 그대로 해석한 그분의 말씀이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하지 아니한다면 나를 믿지 말라. 그러나 내가 행한다면 비록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해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고 또 믿게 되리라.”고 하시니라.”(요한복음 10:37,38) 이름들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맨 먼저 그분께서 어떻게 호칭되어야 할 것인지 아버지께서 인간에게 주신 칭호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

출애굽기 3장 13,14절: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라고 그들에게 말할진대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나?’ 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나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이같이 말할지니 ‘나^{이신}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에게 십계명의 기록이 주어진 실재를 그대가 모두 잘 알고 있다면, 실제로 그가 시온산 정상에서 돌판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기슭에서, 그들이 귀금속을 던져서 만든 금송아지에게 경배하고 있었던 것을 그대가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던 후에, 아주 영적으로 병들어 가장 적게 자극을 받아도 우상숭배에 빠졌다. 그 이유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그분 자신**을 그들에게 제시하실 때 (또 여러 세기 후에 우리에게도 그것에 준한다)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이름을 그들에게 바로 주시지 않았다. “나는 곧 나라고 불려라,”고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저술된 히브리 성경에 관하여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연구한 자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글자가 (사전에서 **Tetragrammaton**: 히브리어로 신을 나타내는 네 글자 **YHWH, IHVH**) 무엇인지 안다. 초기에 신성한 원문을 가장 가깝게 번역한 자들이, 모세에게 주어진 거룩한 이름을 기록하기를 아주 주저하고, 그들이 그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모두 “주 Lord 또는 LORD”로 대신하였다. 그에 더하여, “일 El” 또는 “일로힘 Elohim” 대신 “**간 God**”으로 사용하였고, 그 의미가 역시 “주”가 되었다. 본래, 그분의 이름이 주어진 것은 히브리 성경에서 **IHVH**로 읽었다: 4개로 된 글자들이다. 그렇지만, 히브리 글자들에서 “I”와 “Y”는 동등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YHWH**로 기록된 것을 본다. 역시, “V” 글자가 “W”로 또는 “OO”로 발음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음성학상으로 정확하게 하면, 그 이름이 **YHWH**로 번역된 글자로 바꾸어 쓰여진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발음하려고 계획하면, 우리가 역시 어떤 모음들이 필요하므로, 그 이름이 **YxHWxH**가 된다. 어떤 부드러운 모음이든지, “a” 또는 “e” 또는 “o” 발음으로 시도하면 될 것이다; 실제적으로 그 결과는 똑 같은 것임을 그대가 발견할 것이다. -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야웨 - **YAHWEH**”로 기록한다. 우리가 출애굽기 3:14절로 되돌아가면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된다. “야웨”,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같이 말할지니 ‘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더 간결한 표현 형식으로, “야”의 있는 그대로의 뜻은 “나” 또는 “스스로 존재하는 나”. 아주 재미있는 것은, 이것이 역시 히브리어에서 “내가 창조한다.” 라는 암시가 들어 있다; 여전히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하여 또 하나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이제는 그분 아들의 이름에 대하여 고려한다. 이것이 즉시 분명한 것은 “예수 **Jesus**”는 J 글씨가 아주 나중까지도

개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곧 틀린 발음인 것을 깨닫게 되며, 또 오늘날 히브리어에서 J와 같은 발음이 없다. 이것이 역시 한 근거가 되어 아버지를 적용할 때 “여호아 Jehovah”는 잘못된 것이다. 구주께서 생애 하실 때 “Tahushua”로 불렸고 또는 위에서 번역한 방식에 따라서, “야쉬와 Yah-shua.”로 부른다. 야쉬와를 (Yahshua)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야께서 구원하신다. - YAH saves” 또는 “야는 구원자 - YAH is salvation.” 우리가 천사가 요셉에게 준 기별을 이 마음으로 읽으면 그 뜻이 아주 분명할 것이다.

역시, 지금 한층 더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요한복음 10:38,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또 내가 그 분 안에 있느니라,” 또 우리가 참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야께서” “야- 쉬와” 안에 계시고 또 “야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은 완전한 야웨의 생각이며 구성요소이다. 이 근거로, 나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더 정확하게 “야” 그리고 “야쉬와”에 형식으로 사용하는데 주의할 것이다. 때때로 내가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특별하게 인용할 때는 간단하고 명백함을 위함이다. 그밖에 신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언급할 때 야쉬스 또는 유사한 발음들이 틀리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은, 때로는 선구자 엘리야를 (Eli-Yah 일라야) 일라야스, 요나를 조나스와 같이 불렀기 때문이다.

먼저 내가 이 기사를 게시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 주제를 취급하고 난 후에, 나의 다른 기록들을 통하여 이것이 줄곧 이어지기 때문이며, 또 내가 왜 그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지 독자들이 기이하게 생각할 것을 내가 확신했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참으로 (성)이 동일한 것임을 확인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내가 믿는다, 특히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하고 생애 하기 때문이다. 야의 축복이 그대와 시종 함께하기를 그분의 아들 야쉬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David. 데이비드.